

“본업 수익성 강화·외연확장 동시추진… 시장 판 바꾼다”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삼성화재

성장보다 수익·리스크 균형 우선
“글로벌 탭티어 보험사 지향”

캐노피우스 발판 북미사업 확장
AI, 본업 프로세스의 혁신 정의

삼성화재가 새해를 맞아 ‘사업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코어(Core) 강화’,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시장의 판 선도’를 밀어 부친다.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전제로 ‘빠르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 ‘세전의 5조원·기업가치 30조원’이란 2030년 비전 달성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코어 강화’… 수익 중심 밸류체인 재편

삼성화재의 ‘코어 강화’의 핵심은 성장보다 수익성과 리스크의 균형을 우선하는 재설계다. 장기보험은 상품·언더라이팅·유지관리 등 전 밸류체인을 수익성 기준으로 재정렬해 CSM(보험계



삼성화재 사옥과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삼성화재

약마진) 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보험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플랜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흑자 사업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일반보험에서는 사이버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등 성장영역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자산운용은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전제로 고수익 유망 섹터 투자 확대를 이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시장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공고히 하고,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탭티어 보험사를 향

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성장보다 수익성·리스크의 균형을 먼저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코어 재편’은 지난 2025년 손해를 부담이 다시 부각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화재는 2025년 3분기(단일 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익이 648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34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전반에서도 보험료 조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본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 2026년 경영기조가 자동차를 포함한 전 부문 ‘수익성 중심’으로 내려온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 ‘룰메이커’, 캐노피우스·삼성Re·AI 내재화

2026년 삼성화재의 키워드는 ‘본업의 수익성 재정렬(코어)’과 ‘글로벌·AI를 통한 외연 확장(룰메이커)’ 동시 추진이다. 두 번째 축인 ‘룰메이커’는 글로벌 확장과 영업조직 혁신, AI 내재화를 묶어 “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은 지분을 40%까지 확대한 로이즈 기반 손보사 ‘캐노피우스’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사업을 본격 확장할 방침이다. 캐노피우스는 작년 6월 삼성화재가 추가 21% 지분을 매입하기로 합의해 지분율이 40%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보험 자회사 ‘삼성Re’는 사이버 등 유망시장 발굴과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면 영업조직은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 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구분한 뒤, 영업 리더의 전문성을 융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영업 메카’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AI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본업 프로세스 혁신’으로 정의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OCR(문자 인식)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AI 의료심사’를 도입하고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의료문서를 자동 분석해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엔 고객DX혁신실을 통해 체계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극 적용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린다. 이미 진행 중인 AI 적용을 전사 확산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화재는 2025년 밸류업 계획에서 K-ICS(지급여력) 관리목표를 220% 수준으로, 지속가능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11~13%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 확대 등을 내건 바 있다. 2026년 경영기조의 ‘리스크 관리하 고수익 투자’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이 자본 여력·주주 가치와 어떻게 맞물려 실행될 지도 시장의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사업 확장, 대면 영업조직체계 혁신, AI 활용 확산을 통해 시장의 판을 바꾸어 리딩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성공 DNA를 다시 일깨움으로써 승자의 조직문화(Winning Culture)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베네수엘라 마두로 압송… ‘금값’ 또 뛴다

뉴욕선물거래소, 온스당 금 선물
전일비 2.82% 오른 4451.50달러

美 트럼프, 쿠바 등 주변국 압박에
금값 추가상승, 최고가 경신 전망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주춤했던 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벌인 군사작전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콜롬비아·그린란드 등 주변국을 향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6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451.50달러다. 전 거래일보다 121.90달러(2.82%) 올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장기화로 금값이 급등한 작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 반등으로 사상 최고가에 약 100달러 가량 앞섰다.

이날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영향이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부패 의혹과 마약 거래 지원을 이날 군사작전의 이유로 들었다.

군사작전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및 미국 압송으로 종료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권한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미국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 중인 골드바.

/뉴시스

예고했지만, 로드리게스는 5일(현지시간)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의 불법적 군사적 침략으로 대통령 부부가 피랍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통한 베네수엘라 완전 점령 가능성은 우선 배제했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마약 밀매 중단, 석유 산업 재편 등 미국에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원유 수출 봉쇄, 마약 운반선 공격 등 압박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쿠바, 멕시코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라며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콜롬비아를 겨냥해 “(콜롬비아는)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행보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 확대될 경우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귀금속 전문 기업 헤라우스 메탈스의 알렉산더 쥔프 귀금속 트레이더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분명하게 안전자산 수요를 다시 활성화시켰고, 이는 지정학적 불안정, 에너지 공급,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존 우려에 더해졌다”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되거나 미 경제지표가 급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면, 금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강태영 NH농협은행장, 中 북경 현장경영

현지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국 경제사절단 포럼 참석 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을 찾아 중국 진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 내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북경지점의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

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협력과제 도출 및 사업기회 선점 등을 주문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외시장”이라며 “NH농협은행은 현지 거점인 북경지점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KB금융, 업계 첫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12개 계열사 공동대응 체계 확립

KB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6일 “랜섬웨어, 외부 점점 해킹 등 금융권에서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교하고 지능화된 조직적 활동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보안 수준과 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KB금융은 지난해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조직 내에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 동관에 마련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12개 계열사의 외부 침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확립 ▲그룹 공통 보안 프레임워크·표준 보안정책 수립 ▲AI·가상자산 등 신기술 보안 위협 연구·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그룹 사이버보안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사이버보안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 침해위험을 탐지·차단하는 방어 전문 조직 ‘블루팀(그룹 통합보안관제)’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

레드팀은 각 계열사의 화이트해커 인력을 투입해 비대면 앱·웹에 대한 모의 해킹과 침투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며 그룹 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